

# 가나안의 편지

※위 제호는 일가 김용기 선생님께서 쓰신 필체입니다.

2025년 3월호



가나안농군학교의 소식을 전하는

# 가나안의 편지

2025년 3월호



## 표지 이야기

잠시 멈추었던 가나안의 편지를 재발행하며 정한나(전, CGLC 교직원) 자매가 그린 가나안의 전경을 표지로 정하였습니다.

개교 52년을 맞아 수없는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복민운동의 맥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사명자로 '오래된 새길'을 걸어갈 소망합니다.

발행일 : 2025년 3월 28일

발행처 : 가나안농군학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5 가나안농군학교

전화 : 033-762-5090

사이트 : <https://www.canaanin.or.kr/>

디자인 제작 : 가나안농군학교

## 목차

01 가나안농군학교 52주년 감사예배 및 펠로우 위촉식

02 52주년 기념사

04 가나안농군학교 소식

후원 개인 및 단체



## 황무지를 개척한 믿음의 학교, 가나안농군학교

가나안농군학교는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가 김용기 장로와 둘째 아들 김범일 명예이사장,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한 제자들과 개척자들이 함께 황무지를 일구어 세운 학교다.

총 면적은 약 15만 평(49만 제곱미터) 규모이며, 가나안 정신인 근로·봉사·희생을 기반으로 농장(근로), 학교(봉사), 성도원(희생)으로 공간이 나뉘어 조성되었다. 2025년 2월 말 기준, 총 75만여 명(1교 포함)의 수료생이 배출되었으며 교육과 농장과 공동체적 삶을 통해 가나안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재)가나안복민재단

가나안농군학교

CANAAN FARMERS SCHOOL

## “ 다시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

가나안농군학교는 개교 52주년(1973년 3월 13일 개교)을 맞아 지난 2025년 3월 10일 오전 11시, 교내 세계지도자교육원 기념관에서 감사예배 및 펠로우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재단 관계자와 학교 교직원, 외빈이 함께 모여 지난 52년의 걸음을 돌아보며 감사와 다짐의 시간을 나눴다.

1부 감사예배는 김태은 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교직원들이 특송을, 오세택 목사(일가수도원장)가 “가나안의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다.

이어진 2부 기념식 및 펠로우 위촉식에서는 김범일 명예이사장이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오명도 이사장이 기념사를 통해 개교 52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펠로우 위촉식에서는 다양한 분야

에서 가나안농군학교와 협력할 인물들이 새롭게 위촉되었다.

• 학교부설 삶과학습연구소 부소장:  
한영숙 (소통을 디자인 하는 사람들 대표)

• 교육분야 펠로우:  
이영옥(제이드교육컨설팅 대표)  
허지은(더공감연구소 대표)  
이사라(소통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강사)

• 영성과 신앙지도 분야 펠로우:  
구학관 (목사, 가나안살이 가족)

• 청년마을공동체 및 문화 분야 펠로우:  
김종희 (목회 멘토링 사역원 대표)

• 농업분야 펠로우:  
김영준 (장로, 가나안 살이 가족)

새로 위촉된 펠로우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나안농군학교의 사역이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나안 정신을 각 분야에서 더욱 힘 있게



## “ 먼저 우리들이 변해야합니다 ”



이제 입춘과 함께 유달리 춥고 눈도 많았으며 우리들을 움츠러 들게 하였던 겨울은 물러나고 모든 만물에 새로움이 움돋는 봄의 기운이 계절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큰 꿈을 가지고 버려진 신림 동산을 개척하셨던 일가 김용기 장로님과 그 뜻을 평생 이어오셨던 김범일 명예이사장을 기억하였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의 고단했던 개척 길에서는 믿음으로 동행하며 헌신해 오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농군학교를 위해 후원과 기도로 함께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가나안농군학교는 오늘까지 이어질 수 없었을 것 입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단순히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농업 교육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설립자이신 일가(一家) 김용기 장로님의 신앙과 신념과 꿈을 계승하여, 근로, 봉사, 희생의 공동체로 수많은 신앙인들과 교육생들의 영혼에 울림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변화의 배움터였습니다. 김용기 장로님께서서는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길을 열어가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기반으로 근로하며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계획과 실천을 통해 이 땅의 가난과 궁핍을 극복할 수 있고, 개인과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번영과 변화로 길로 이끌어 간다는 확신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 신림동산 가나안농군학교는 50년의 시간을 넘어서며 단순한 정신교육을 넘어, 인간의 근본을 변화시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가나안농군학교를 찾아온 많은 교육생들과 신앙인들이 가나안 공동체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화하여 가나안농군학교를 찾아오는 교육생들과 신앙인들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급격히 변화된 새로운 사회에서 분명 가나안농군학교는 존재하지만 그 역사와 정신은 잊혀져 가고 있으며, 그 사회적 위상과 인지도도 과거와 달리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나안농군학교는 여러 면에서 위기의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시대 가나안농군학교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52주년 개교 행사는 연례적 행사가 아니라, 현재를 직시하고 일가정신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맞서는 지혜와 힘을 모으는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근로, 봉사, 희생의 가나안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성장하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식구들은 단순한 개인의 생계를 위해 노동하고 월급을 받는 세상의 직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수행하는 삶을 스스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다양한 꿈을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돕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저도 가나안농군학교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에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게 할 책무를 맡은 가나안복민재단 이사장으로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겠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가 부족하였던 지속가능한 기본적인 틀을 구축해 가며, 비영리 기관의 생명인 투명성을 확보하고, 믿음과 신뢰가 쌓여갈 수 있도록 목표 있는 계획과 실천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선 동역자들의 진솔한 노력이 모여진다면, 빈곤과 궁핍의 시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켰던 가나안농군학교의 역사가 회복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지속되어질 것으로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곳 신림 동산에 또다시 충만해 지기를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앞으로 가나안농군학교가 생명없는 삶을 벗어나고 고갈된 생기의 충전을 바라는 많은 영혼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영적 회복과 회심의 동산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뜻깊은 출발의 날을 맞아, 가나안농군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손을 맞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농군학교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든 과정에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이 학교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3 개교 52주년을 맞으며..

가나안복민재단 이사장 오명도

교육소식

가나안농군학교 2025년 첫 교육“수원서문교회”



가나안농군학교의 2025년 첫 교육은 수원서문교회와 함께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5년생의 선생님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가나안농군학교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아이들이 어느새 상추를 수확하고 밥을 먹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 교육생들을 보며 교육팀에서도 함께 보람을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2025년 첫 교육을 시작으로 가나안농군학교의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장 소식

가나안 친환경 농장, 2025년 첫 농사 시작!

긴 겨울을 지나, 가나안농군학교 첫 유기농 작물로 브로콜리 1만 주를 정식(定植)했다. 지난 1월부터 2달여간 영하의 기온에서 스마트팜 온실을 이용해 3중 보온방식으로 키운 브로콜리 모종 1만 주를,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 교직원과 가나안 가족이 함께 비닐하우스에 아주심기했다. 정식이 진행된 곳은 농군학교 내 2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4동과 3연동 하우스 1동이며, 브로콜리는 5월 중순께 수확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확한 브로콜리는 대부분 계약재배로 판매되며, 일부는 가나안 친환경농장(콩콩팜)을 통해 직거래로 제공될 예정이다.



학교 소식

교내 식물공장 증설 및 울산대와 실증 연구 진행



가나안농군학교는 지난 2021~2023년 다부처 패키지 국가연구를 성공적으로 공동 수행한 울산대학교(임옥택 교수팀)와 함께, 올해도 스마트팜 식물공장에서 실증 위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식물공장 위에 40피트 컨테이너 2동을 추가로 설치해 실증 재배 면적을 두 배로 확장했다.

## 제276차 가나안장로기도모임 가나안에서 열려....



아직 잔설이 곳곳에 남아있는 3월 8일 오후 12시 가나안농군학교에서는 제276차 가나안 장로 기도모임이 개최되었다.

13분의 장로님이 원근각처(춘천, 영월, 안동, 영양, 원주, 횡성....)에서 참석하셔서 가나안농군학교와 해외 가나안농군학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가나안 장로 기도모임은 2001년 4월 5일 김범일 명예 이사장님과 김상옥선교사님이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그 당시 불교국이자 군사정권 하에서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미얀마 가나안농군학교를 위한 기도모임으로 출발했다. 현재는 가나안농군학교와 세계지도자교육원, WCM, 해외 가나안농군학교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장로님들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으로 외부의 재정 도움 없이 25년째 이어오고 있다. 장로님들이 기도의 열정과 가나안에 대한 사랑으로 매월 노구를 이끌고 가나안에 모여 함께 기도로 가나안 사역들을 지원한다.

비록 창립 멤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몸이 불편해 계속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결같이 매월 둘째주 토요일 12시에 농군학교에 모여 뜨겁고 간절히 기도로 가나안의 사역들을 위해 중보하는 가나안의 공식적인 기도모임이다.

현재 김영명 장로님이 회장으로, 박수춘 장로님이 총무로 수년째 모임을 섬기고 계신다. 가나안 가족들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 가나안 장로기도회는 가나안 가족들의 적극적 동참과 회원 확장을 위해 올해 안에 장로님들을 포함 가나안 가족 전체로 대상을 넓혀 가나안 기도 모임으로 확대 재편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 후원 개인 및 단체

강명진 강남푸른치과 강찬진 거룩한 빛 광성교회 권기범 권영인 김기혜 김예찬 김홍주 김축복 노광수 노병현 대백선교문화재단 돌다리교회 문태규 박수영 백도현 서문교회 세인교회 신림가나안교회 신민선 신민희 심두자 오혁진 온누리교회 이자경 인애교회 장소영 장은숙 전상우 정성용 정연국 최만열 충정교회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가나안의 편지



(재)가나안복민재단

**가나안농군학교**

CANAAN FARMERS SCHOOL

2650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5

**TEL** (033)762-5090/5201 **FAX** (033)763-6478

5, Yeonbongjeong-gil, Sillim-myeon, Wonju-si, Gangwon-do, Rep. of KOREA